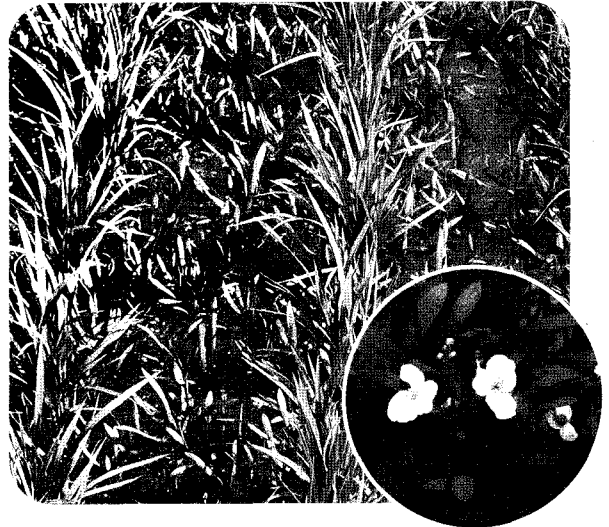


광엽 잡초(2)

■ 이인용 농촌진흥청

을 미

택사과에 속하는 다년생잡초로 주로 토양 0~5cm 깊이에 있는 덩이줄기로부터 발생한다. 올미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발생 후 50~60일이 지나면 새로운 덩이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일장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7~9월경 잎 가운데에서 10~25cm의 화경이 나와 선단에 2~3개의 백색 꽃이 핀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설폰닐우레아계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나, 일부지역에서는 이들 약제에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제초제를 생육초기 잎이 논물에 잠길 정도의 상태에서 약제를 처리하면 방제할 수 있다.



벗 플

자웅동체(雌雄同體)의 다년생잡초로 거의 덩이줄기에 의해서 번식하나 일부는 종자로도 확산된다. 덩이줄기는 휴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로 방제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발생 후 60일 정도가 지나면 땅속줄기가 자라서 끝부분에 덩이줄기를 형성한다. 초장은 50~100cm이고, 잎은 화살촉 모양으로 지역 및 장소에 따라 변화가 많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설폰닐우레아계 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이들 약제는 대부분 토양처리형 제초제로 생육초기 잎이 논물에 잠길 정도의 상태에서 약제를 처리하면 방제할 수 있다.



가 래



논, 습지 등에서 발생하는 가래과의 다년생잡초로 지하경 끝부분에 바나나 모양의 비늘줄기(인경, 鱗莖)를 형성하여 영양번식을 한다. 토양 20cm 깊이에서도 출아하며, 대개 씨레질 7~16일 후에 발생을 시작한다. 휴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이 비교적 균일하며, 비늘줄기는 1본씩 떨어지더라도 싹이 틀 수 있기 때문에 로타리 작업은 가래의 발생면적을 증가시켜 왔다. 피라졸레이트 또는 피라족시펜의 혼합제 처리로 쉽게 방제되며 디메타메트린·피페로포스입제, 설포닐우레이계 제초제로도 방제할 수 있다.

닭의장풀

달개비라고도 불리는 일년생잡초로 종자로 번식을 하며 밭에서 양분경합을 일으키며 재생력이 강한 잡초이다. 종자는 아주 작은 미세종자로 많은 양이 달리고 균락을 이루며 발생한다. 줄기는 하부가 뻗으며 가지가 많이 나온다. 잎모양은 난상피침형으로 털이 없거나 뒷면에 약간 있다. 7~8월에 하늘색 꽃이 피며 8월부터 열매가 성숙된다.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사용하여 밭아를 억제시키고, 공한지에 발생된 닭의장풀은 비선택성 경엽처리형 제초제로 방제한다.



쇠뜨기



밭, 길가, 공한지, 제방 등에 발생하는 속새과의 다년생잡초로 지하경과 포자로 번식한다. 소가 잘 뜯는다 하여 쇠뜨기라고 하지만 사료가치는 거의 없다. 지상부는 생식경과 영양경으로 구분되는데 생식경은 이른 봄에 나와서 끝에 붓대거리같은 포자낭이삭을 형성하고 마디에 비늘 같은 잎이 윤생한다. 영양경은 좀 늦게 나오며 지표에서 곧추 서고 높이 30~40cm 이다. 방제는 토양처리제보다는 비선택성이며 흡수이행성인 경엽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으며, 살포시기는 생육최성기인 6~8월이 좋다. Y